

장애인의 차별 인식 실태와 정책과제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오욱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경험하는 차별 인식은 34.8%로 나타났으며, 2011년, 201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은 79.9%로 매우 높고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아 개인적 경험을 넘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장애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 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 인식이 모든 영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으며, 감각기관 장애인의 경우 특정 영역에서의 높은 차별 인식이 확인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저연령대에서 차별 인식이 높게 나타난다. 생활 영역 중에서는 교육 영역의 차별 인식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보육과 초등교육에서의 차별 인식이 높아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올해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장애인운동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 연계 차별 등의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차별

행위의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소송 제기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장애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우리 사회의 장애 차별이 철폐되기를 기대했고, 시행 이후 실제로 이 법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은 많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 차별이 상존한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도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장애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존재하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이를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차별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차별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당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차별이라 느꼈어도 실제로는 차별행위라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며, 실제로 차별행위를 당했다더라도 본인이 차별이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차별에 의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으려면 우선 본인이 차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 인식은 권리 실현의 전제조건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조광자, 2010, p. 59). 또한 차별 인식은 차별행위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장애 억압적인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장애 차별을 파악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관점이 될 수도 있다(전지혜, 2009, p. 421).

따라서 이 글은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전반적인 차별 인식과 생활 영역별 차별 인식을 파악하고 2011년,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그 변화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15개 법정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미등록

장애인도 포함하였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장애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시대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 유형과 연령대별 차이도 함께 제시한다. 장애 유형은 표본 수를 고려하여 15개 세부 장애 유형을 지체·뇌병변·안면장애, 시각·청각·언어장애, 내부기관장애(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 차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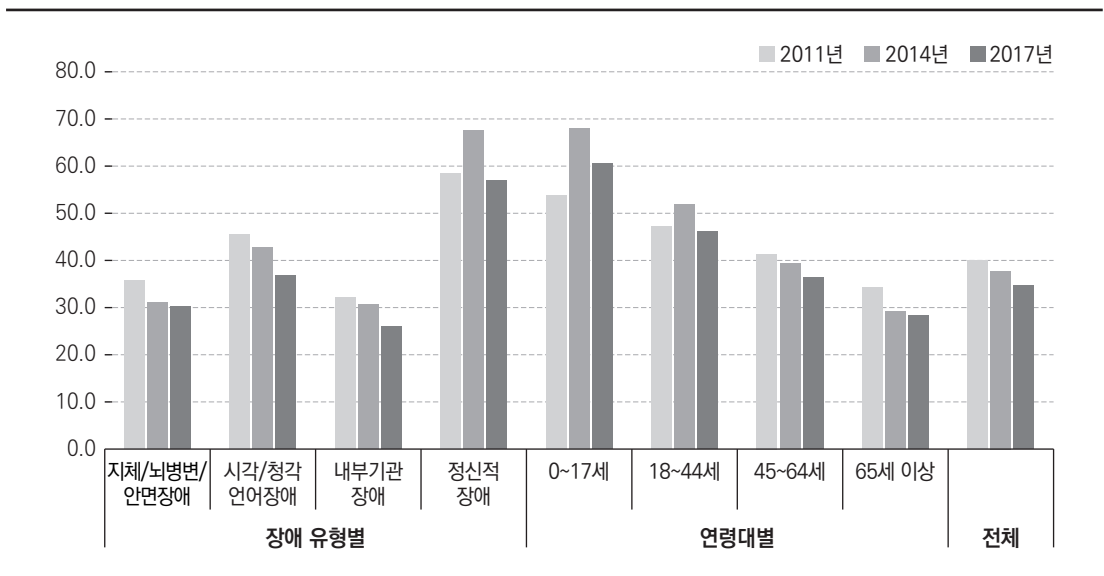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현재 본인의 장애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항상 느낀다', '가끔 느낀다'는 응답은 34.8%로 전체 장애인의 3분의 1 이상이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했다. 장애 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차별 인식이 가장 높았는데, 56.9%가 본인이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했다. 연령대별로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집단이 60.5%로 차별 인식이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차별 인식이 낮았다. 이는 실제로 저연령대 장애인이 차별을 많이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연령대가 낮을수록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1. 현재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2017년)

구분	장애 유형				연령대				전체
	지체· 뇌병변· 안면장애	시각· 청각· 언어장애	내부기관 장애	정신적 장애	0~17세	18~44세	45~64세	65세 이상	
항상 느낀다	6.3	6.4	6.5	16.3	20.5	13.2	8.2	4.4	7.6
가끔 느낀다	24.1	30.2	19.7	40.6	40.0	33.0	28.2	23.9	27.2
항상 느낀다 + 가끔 느낀다	30.3	36.6	26.2	56.9	60.5	46.2	36.4	28.4	34.8
별로 느끼지 않는다	46.5	46.9	50.6	36.1	28.6	37.1	43.2	51.0	45.5
전혀 느끼지 않는다	23.2	16.6	23.3	7.0	10.9	16.7	20.4	20.6	19.7
별로 느끼지 않는다 + 전혀 느끼지 않는다	69.7	63.4	73.8	43.1	39.5	53.8	63.6	71.6	65.2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그림 1. 장애 유형별 및 연령대별 장애인 본인의 차별 인식 변화



주: '항상 느낀다', '가끔 느낀다'는 응답 비율을 제시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2011년, 2014년, 2017년에 걸쳐 본인에 대한 차별 인식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1년

40.0%였던 차별 인식은 2014년 37.8%로 나타났고 2017년에는 34.8%까지 낮아졌다. 2011년

과 2014년에도 장애 유형별, 연령대별 분포는 2017년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대부분의 장애 유형과 연령대에서 차별 인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장애 유형에서는 정신적 장애, 연령대에서는 45세 미만에서 2014년의 차별 인식이 다른 연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 본인에 대한 차별 인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는지도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약간 있다', '매우 있다'는 응답은 79.9%로 본인에 대한 차별 인식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인다.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 또한 장애 유형에서 정신적 장애가 89.3%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표 2.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도(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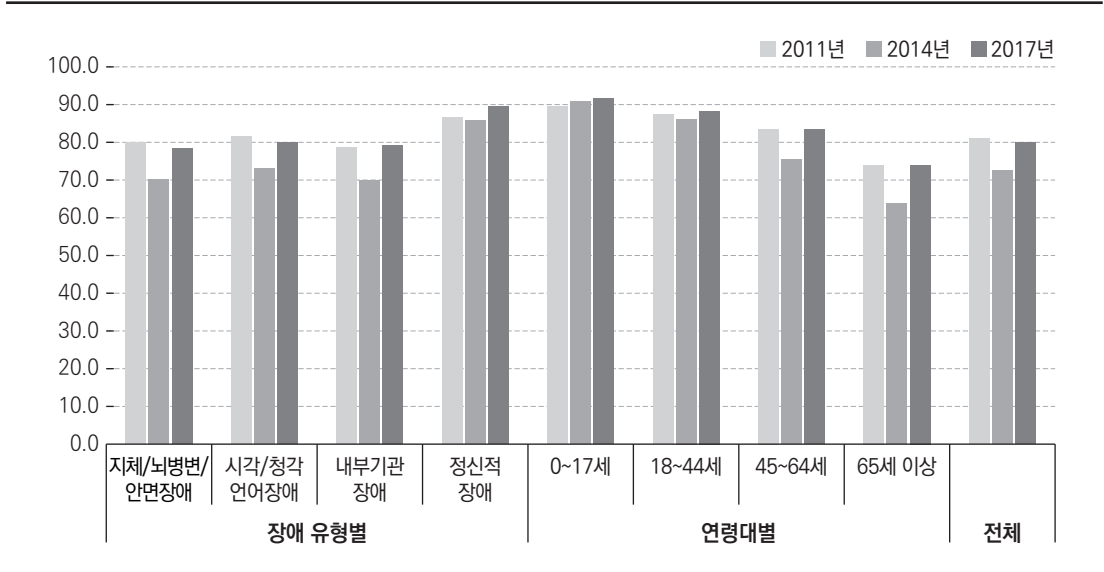
구분	장애 유형				연령대				전체
	지체·뇌병변·안면장애	시각·청각·언어장애	내부기관 장애	정신적 장애	0~17세	18~44세	45~64세	65세 이상	
전혀 없다	2.1	1.6	0.6	1.1	1.3	1.2	1.6	2.2	1.8
별로 없다	19.8	18.6	20.4	9.6	7.1	10.8	14.9	24.0	18.3
전혀 없다 + 별로 없다	21.9	20.3	21.0	10.7	8.4	12.0	16.5	26.1	20.1
약간 있다	45.9	49.6	46.6	40.0	31.4	43.5	44.1	49.2	46.0
매우 있다	32.2	30.2	32.5	49.3	60.2	44.5	39.4	24.6	33.9
약간 있다 + 매우 있다	78.1	79.7	79.0	89.3	91.6	88.0	83.5	73.9	79.9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본인에 대한 차별 인식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와 달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은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2011년 80.7%에서 2014년 72.6%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2017년에는 다시 79.9%로 올랐다. 이러한 추세는 18세 미만을 제외하면 장애 유형별, 연령대별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18세 미만의 경우 미세하지만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른다'는 응답이 60.7%로 나타나 아직까지 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도 25.3%로 나타났으며, 13.9%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 유형에서는 시각·청각·언어 장애인의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66.1%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림 2. 장애 유형별 및 연령대별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



주: '약간 있다', '매우 있다'는 응답 비율을 제시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표 3.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 상태(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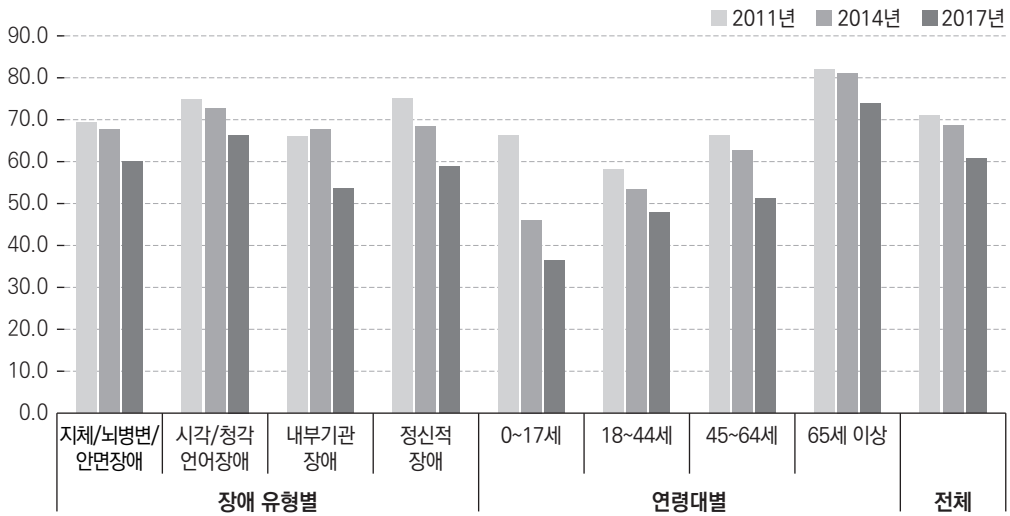
구분	장애 유형				연령대				전체
	지체·뇌병변·안면장애	시각·청각·언어장애	내부기관 장애	정신적 장애	0~17세	18~44세	45~64세	65세 이상	
알고 있다	14.0	12.1	18.5	14.8	28.9	22.9	18.0	7.1	13.9
들어 봤으나 내용 모른다	26.1	21.8	28.2	26.5	34.8	29.4	30.7	19.2	25.3
모른다	59.9	66.1	53.3	58.6	36.3	47.7	51.2	73.7	6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모른다는 응답은 2011년 70.8%, 2014년 68.7%, 2017년 60.7%로 6년 사이에 10%포인트 이상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대체로 모든 장애 유형과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2011년(66.3%)에서 2017년(36.3%) 사이의 감소 폭이 30%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그림 3. 장애 유형별 및 연령대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 변화



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을 제시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3. 생활 영역별 차별 인식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장애로 인하여 받은 사회적 차별을 다양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생활 영역별 차별 인식을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였다. 우선 입학·전학(5개 항목)과 학교생활(3개 항목)에서의 차별을 교육 영역으로 묶고 취업, 소득(임금), 동료 관계, 승진의 4개 항목을 고용 영역으로 묶었다. 그리고 결혼, 운전면허 취득, 보험제도 계약, 의료기관 이용, 정보통신 이용, 지역사회생활의 6개 항목은 사회활동 영역으로 묶었다. 이러한 생활 영역별 차별 인식은 앞서 제시한 차

별 인식과 달리 현재의 차별 인식이 아니라 생애 기간 동안의 차별 인식을 측정하고 있다.

가. 교육 영역

입학·전학에서의 차별 인식은 초등학교(40.3%)와 유치원(37.1%)에서의 차별 인식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 유형별로도 대체로 유사했지만 내부기관장애인의 경우 유치원에서의 차별 인식은 낮고 중학교에서의 차별 인식이 높았다. 또한 대체로 모든 학교 유형에서 입학·전학에 대한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 인식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45세 미만 장애인의 차별 인

표 4.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 인식을

구분		장애 유형				연령대				전체
		지체·뇌병변·안면장애	시각·청각·언어장애	내부기관 장애	정신적 장애	0~17세	18~44세	45~64세	65세 이상	
입학 전학	유치원(보육시설)	33.9	21.9	5.0	46.8	40.8	39.6	27.5	14.8	37.1
	초등학교	39.4	25.9	23.5	51.7	42.7	44.2	39.7	29.5	40.3
	중학교	32.0	20.6	25.4	42.8	35.1	38.9	29.1	17.6	33.0
	고등학교	20.0	15.0	18.9	38.5	33.7	30.8	18.8	14.5	26.0
	대학교	8.0	7.6	17.7	24.0	-	15.1	6.1	5.4	11.6
학교 생활	교사로부터	16.5	11.2	15.0	29.4	19.1	24.1	19.1	10.1	19.8
	또래학생으로부터	49.0	36.4	43.7	62.7	50.0	53.5	51.3	42.3	50.7
	학부모로부터	13.9	10.1	15.8	29.0	20.8	22.6	16.4	9.3	18.4
교육 영역 전체		54.2	42.5	44.6	71.0	63.6	62.1	53.9	45.3	57.1

주: 항목별로 비해당 사례를 제외함. 교육 영역 전체에서는 8개 항목 모두에 비해당인 사례만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식이 45세 이상 장애인보다 높았다. 학교생활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는 인식이 20% 미만인 데 비해 또래학생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는 인식은 50.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모든 장애 유형과 연령대에서 공통적이다.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역시 장애 유형 중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이 가장 높았으나, 연령대별로는 입학·전학과 달리 45세 전후가 아닌 65세 전후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교육 영역 8개 항목 전체에 대한 차별 인식은 57.1%로 나타났다. 이는 무학을 제외하고 교육 경험이 있는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이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역시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 인식이 71.0%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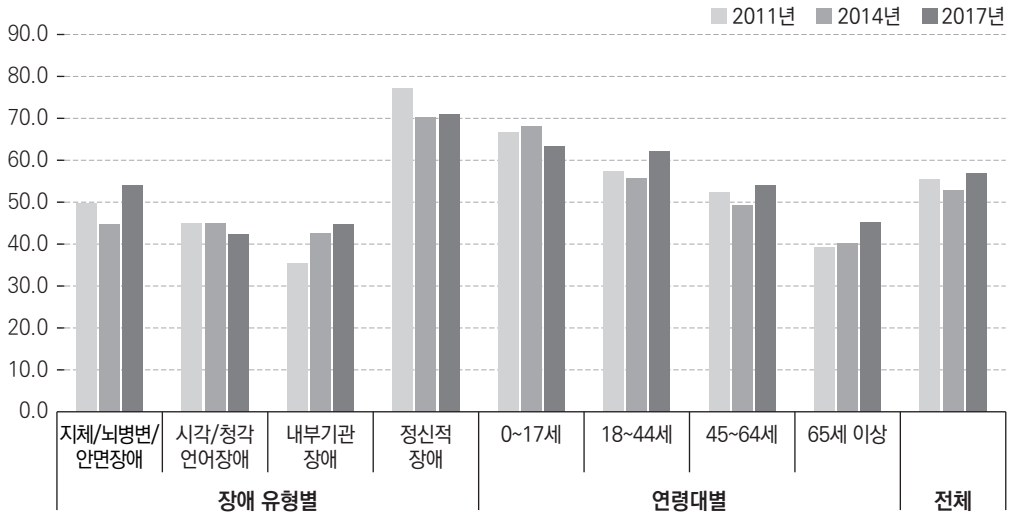
인식이 높았으며 45세 전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교육 영역의 차별 인식은 2011년 55.4%에서 2014년 53.1%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2017년 57.1%로 다시 증가했다. 장애 유형별, 연령대별로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집단은 없었으며, 장애 유형에서는 내부기관장애, 연령대에서는 65세 이상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 고용 영역

고용 영역의 네 가지 항목 중 차별 인식이 가장 높은 것은 취업(30.9%)이었으며 이는 모든 장애 유형과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교육 영역의 차별 인식을 변화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장애 유형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이 모든 항목에서 차별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57.8%가 취업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

고 응답하였다. 항목별 차별 인식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았다. 네 가지 항목을 종합한 고용 영역 전체의 차별 인식은 33.4%로 나타났다. 이는 취

표 5.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 인식을

구분	장애 유형				연령대				전체
	지체·뇌병변·안면장애	시각·청각·언어장애	내부기관 장애	정신적 장애	0~17세	18~44세	45~64세	65세 이상	
취업	27.3	28.7	33.5	57.8	-	40.3	32.3	23.7	30.9
소득(임금)	16.6	16.9	17.9	47.1	-	29.5	19.1	15.0	19.4
동료관계	13.6	18.6	15.2	40.5	-	23.0	17.6	14.4	17.6
승진	11.3	10.6	12.0	23.3	-	14.8	13.3	9.7	12.4
고용 영역 전체	29.2	31.0	37.4	66.3	-	45.1	34.9	25.5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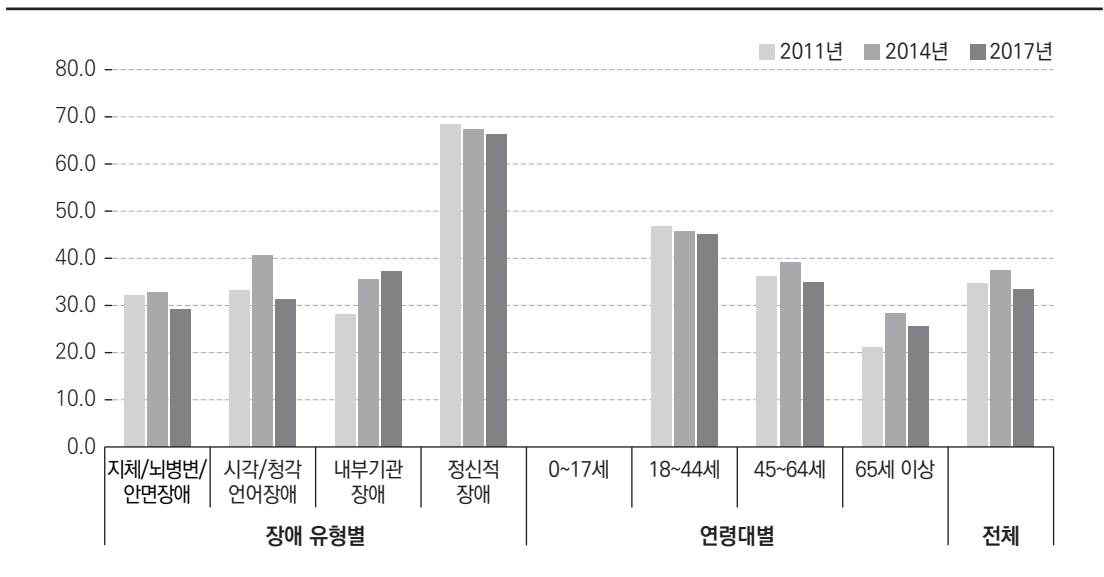
주: 항목별로 비 해당 사례를 제외함. 고용 영역 전체에서는 4개 항목 모두에 비 해당인 사례만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업을 시도했거나 직장생활을 한 장애인 3명 중 1명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고용 영역 전체의 차별 인식 또한 장애 유형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차별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 영역의 차별 인식은 2011년 34.7%에서 2014년 37.2%로 높아졌으나 2017년 다시 33.4%로 감소하였다. 장애 유형에서는 정신적

장애, 연령대에서는 18~44세가 폭은 작지만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내부기관 장애인의 경우 최근 3회의 조사에서 고용 영역의 차별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내부기관장애인은 2011년 조사에서는 고용 영역의 차별 인식이 가장 낮은 유형이었지만, 2017년에는 정신적 장애인 다음으로 높은 유형이 되었다.

그림 5. 고용 영역의 차별 인식을 변화



주: 0~17세는 모두 비해당으로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다. 사회활동 영역

6개 사회활동 항목 중 차별 인식이 가장 높은 항목은 보험제도 계약으로 36.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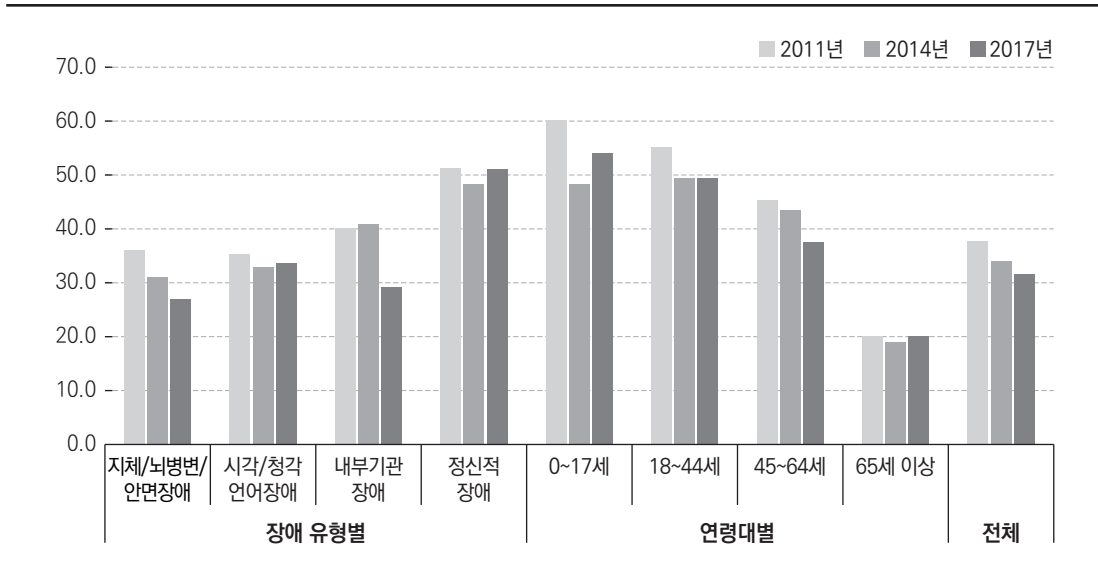
보험제도 계약의 경우 정신적 장애인이 66.3%, 18세 미만이 63.9%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항목에서는 특정 장애 유형에서 유독 높은 차

표 6. 사회활동 영역에서의 차별 인식률

구분	장애 유형				연령대				전체
	지체·뇌병변·안면장애	시각·청각·언어장애	내부기관 장애	정신적 장애	0~17세	18~44세	45~64세	65세 이상	
결혼	15.8	16.2	19.7	46.5	-	27.5	21.6	11.7	17.9
운전면허 취득	4.0	18.8	8.0	28.3	-	17.1	6.5	7.8	8.9
보험제도 계약	31.9	31.0	48.5	66.3	63.9	50.5	35.6	25.9	36.4
의료기관 이용	2.6	4.4	1.5	11.6	7.6	8.3	3.9	2.7	4.0
정보통신 이용	0.5	6.2	0.8	1.5	1.0	2.7	1.2	2.2	1.9
지역사회생활	5.3	7.9	1.8	24.6	25.7	15.8	7.2	5.4	8.1
사회활동 영역 전체	26.9	33.5	29.0	51.0	54.1	49.5	37.7	19.7	31.5

주: 항목별로 비례당 사례를 제외함. 사회활동 영역 전체에서는 6개 항목 모두에 비례당인 사례만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그림 6. 사회활동 영역의 차별 인식률 변화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별 인식이 눈에 띈다. 정신적 장애인은 결혼에서 46.5%, 운전면허 취득에서 28.3%, 지역사회 생활에서 24.6%의 차별 인식을 보였다. 시각·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에서의 차별 인식이 18.8%로 높았고, 정보통신 이용에서도 6.2%로 가장 높았다. 6개 항목을 종합한 사회 활동 영역 전체에서의 차별 인식은 31.5%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에서는 정신적 장애, 연령대에서는 18세 미만의 차별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사회활동 영역에서의 차별 인식은 2011년 37.6%, 2014년 33.9%, 2017년 31.5%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 감소세는 지적·뇌병변·안면 장애와 45~64세 중장년 장애인에게서 확인되며, 내부기관장애인은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의 감소 폭이 매우 컸다. 하지만 특히 정신적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사회활동 영역에서의 차별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4. 시사점

장애인 실태조사에 나타난 장애인의 차별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최근 세 번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본인에 대한 전반적인 차별 인식은 감소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장애 차별 정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개인

의 경험을 넘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장애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장애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이 80%에 가깝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60%에 달한다는 점은 장애 차별적 사회구조의 개선과 권리의식 제고에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둘째, 장애 유형별로 차별 인식이 특히 높은 집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 인식은 전반적인 차별 인식은 물론 교육, 고용, 사회활동 등의 영역에서도 타 장애 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현재 본인이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과 고용 영역에서는 3명 중 2명 정도가 장애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식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인권센터 등에서는 향후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 예방 및 권리 구제를 위하여 정신적 장애에 대한 종사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험제도 계약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차별적인 상법 조항의 개정, 금융감독원의 심사·감독 강화와 같은 제도적 해결책도 요구된다. 또한 시각·청각·언어장애와 같은 감각기관 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과 정보통신 이용에서의 차별 인식이 타 장애 유형에 비해 높은 것도 주목할 점이다. 감각기관 장애인

의 차별 인식은 물리적 환경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매우 관련이 깊기 때문에 보편적 설계에 바탕을 둔 접근성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연령대가 낮을수록 전반적인 차별 인식은 물론 교육, 고용, 사회활동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차별 인식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실제로 나이가 어릴수록 장애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회활동이 많아 그만큼 차별적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시대 변화에 따라 청소년이나 청년층의 장애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저연령대에서 당사자의 장애 차별 민감성이 높다는 점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전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강화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실제로 아동·청소년 연령대가 보육이나 교육에서 인식하는 차별의 수준이 매우 높아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생활 영역 중에서 교육 영역의 차별 인식이 타 영역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난 점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다. 특히 보육과 초등교육에서의 차별 인식이 중·고등교육보다 높게 나타나 심각성을 더한다. 생애 기간 동안의 경험을 축적한 것을 고려하여 18세 미만 장애인의 차별 인식만을 비교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장애 차별적 교육 환경은 학령기의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긍정적 장애 수용이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비장애 학생에게는 부정적 장애 인식을 형성하게 하는 시작점이 된다. 특히

교사나 학부모보다도 또래 학생으로부터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았다는 인식이 상당히 높은 점은 장애 인식 교육을 또래 학생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현실화하고 장애·비장애 통합적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 전지혜. (2009). 장애인에 의해 ‘지각된 차별(perceived discrimination)’의 개념화와 법적 적용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0(2), 399-425.
- 조광자. (2010). 장애인의 작업장 차별인식: 영향 요인 그리고 통계적 증거와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62(3), 59-81.